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h1 style="text-align: center;">보도자료</h1> <p style="text-align: center;">총 4매 (본문2, 붙임2)</p>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융합얼라이언스지원단 유영화 센터장 031-389-6450 김병수 연구위원 031-389-6367 김준범 연구원 031-389-6519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orea Association for ICT Promotion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책사업실 한병학 차장 02-580-0522
 스마트도시협회 Smart City Association		스마트도시협회 스마트도시기술연구단 김태용 실장 02-3667-6006
 (사)벤처기업협회 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		(사)벤처기업협회 커뮤니케이션실 남궁금호 단장 02-6331-7073

2019년 7월 3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즉시 보도
 가능

“스마트시티는 기업의 미래다!” 토크콘서트 성황리 개최

기업·정부·국회가 함께 스마트시티 활성화 방향 모색

- 황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이 주관한 ‘스마트시티는 기업의 미래다!(Players of Smart City)’ 토크콘서트가 7월 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인 스마트시티의 혁신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주체인 민간기업과 정부·공공기관 및 국회가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가져 관심이 집중되었다.
- 금일 토크콘서트에서는 스마트시티 융합얼라이언스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업 300여개社를 비롯해 정부, 공공기관 등 400여 명이 참석하여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의견교환 등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 발제를 맡은 Dell EMC 최귀남 전무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를 위한 민관협력 모델”에 대한 주제로 민관합작투자사업 모델, 민간 중심 시장형성을 위한 방안,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 등을 발표하였으며,

-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황희 의원, 김갑성 스마트시티 특별위원장, 국토교통부 배성호 과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상훈 부원장 LG CNS, 신세계프라퍼티, 이노텍, 오딘에너지, 동녘, 뉴레이크얼라이언스 등의 민간기업이 참석하여
-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IoT, 에너지, 헬스케어,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민간기업의 시각과 대응현황, 산업생태계 조성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이슈사항, 정부의 역할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 우선 기업측 패널들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필요성, 데이터 가치 평가 등 데이터 마켓 형성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기업이 보유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도시 시스템에 실증·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나 규제완화 등 국가가 앞장서서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해 정부측에서는 스마트시티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특정 기술에 국한된 접근보다 기술이 가져오는 궁극적인 사회적인 가치를 담은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기업측에 주문하였고, 특히 국가시범도시의 성공적인 구축을 통해 우리가 민관협력모델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시장규모가 큰 해외로 진출하자고 강조하였다.
- 마지막으로 청중과의 질의응답시간에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실제 도시로 빠르게 접목되도록 절차적, 법률적문제 등을 지원해주는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손봉수 원장은 “이번 토크콘서트는 민간기업과 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서, 민간기업·국민·정부 모두가 원하고 희망하는 스마트시티를 만들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황희 의원은 “금일 논의된 민간기업의 소중한 의견들은 국가 스마트시티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는 오늘 논의된 좋은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 스마트시티 융합얼라이언스는 민간기업 주도의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확산을 도모하고 다양한 분야의 기업간 협력을 목적으로 모빌리티·헬스케어·에너지/환경·문화·거버넌스 등 스마트시티 관련 대·중소·벤처기업 및 공기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끝.

<붙임1> 토크콘서트 개최 사진

<붙임2> “스마트시티는 기업의 미래다!” 토크콘서트 포스터



기업, 정부, 국회가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토크콘서트

스마트시티는 기업의 미래다!

PLAYERS OF SMART CITY

2019년 7월 2일(화)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제발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를 위한 PPP모델
(PPDT 전략을 중심으로)
최귀남 전무 (Dell EMC Korea)

패널토크

- 사회자 문소리 앵커 (SBS CNBC)
- 토론자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갑성 위원장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 나성준 대표 (동네)
- 송수윤 부사장 (오엔에너지)
- 신용규 대표 (뉴레이크 얼라이언스 매니지먼트)
- 이성진 대표 (아노벨)
- 이형천 상무 (신세계프라퍼티)
- 하태석 상무 (LG CNS 미래전략사업부)
- 최귀남 전무 (Dell EMC Korea)
- 이상훈 부원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배성호 과장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 서택원 본부장 (한국해양수산포리도시개발지원공사)

주최

 국회의원 황희

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후원

 국토교통부